

아시아박물관서 떠나는 '실크로드 문화 산책'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는 해상 실크로드를 모티브로 한 '문순으로 열린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비단길'이라는 뜻을 지닌 실크로드는 인류의 문명을 상징한다. 대항해시대 이전에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당시 주요 교역물품이 비단이었던 데서 실크로드라고 불렀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16세기 대항해시대 이후에는 대서양을 통한 대양무역이 확대되면서 초원길 등 내륙 실크로드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 내륙이든 해양이든 실크로드는 문물 교류의 핵심 역할을 견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크로드를 모티브로 당대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는 강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박물관(문화교육실4)에서 열리는 '아시아박물관 산책'이 그것. 강좌를 '산책'이라고 명명한 데서 보듯 실크로드의 역사와 기원, 문화 등을 느긋하게 돌아볼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 ACC, (재)아시아문화재단, 광주일보사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불교를 비롯해 회화, 공예,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먼저 강의의 문은 오는 3월 6일 조성욱 전북대 교수가 연다. 강의 주제는 '중앙아시아 지리'로 조 교수는 아시아 대륙에서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리를 강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시베리아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지형으로 여러 나라와 다양한 민족에 걸쳐

호남문화재단·ACC·광주일보 공동 3~6월 불교·회화·공예 등 주제 강의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

있다. 3월 20일에는 강인욱 경희대 교수가 '실크로드 기원'을 모티브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동서문명 교류의 중요한 축이었던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5월에는 박하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실크로드', 이주형 서울대 교수의 '실크로드의 불교',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부장의 '실크로드의 회화', 이송란 덕성여

대 교수의 '실크로드의 공예', 전인평 중앙대 명예 교수의 '실크로드의 음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6월 12일)은 주아제르바이잔 대사를 역임했던 전문가의 강의로 채워진다. 최석인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강의 신청은 ACC 누리집 또는 호남문화재단 구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

한편 강좌와 맞물려 지난달 29일부터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매개로 동남아시아 해상 교역과 문화 교류를 알 수 있는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 항구도시'가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 1에서 개막해 눈길을 끈다.

계절풍 '문순'은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의미한다. 문순을 따라 동남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교역이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교류됐다. 전시장에서는 항구도시를 오간 이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문화 '쁘라나나'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강좌와 '문순으로 열린 세계'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는 물론 동남아시아 해양까지 이르는 교류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와 강의라며 "특히 지난 2017년 네덜란드 델프트 헤리티지와 협약을 통해 수증받은 '누산타라 컬렉션' 가운데 400여 점의 풍부한 유물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60~70년대 삶의 모습들...추억속으로

박인주 개인전, 20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골목 귀퉁이에 수북이 쌓인 연탄재. 다 타고 남은 연탄은 으스스하고 깨져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이맘때면 한겨울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연탄의 잔해가 골목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다. 70~80년 한겨울 도심의 골목 귀퉁이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수북이 쌓인 연탄재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떠올리게 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치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구절이 주는 울림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연탄재쌓기'

광주대 호심미술관(20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는 박인주 한국화가의 개인전, '연탄재 쌓기' 작품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이 머문다. 기성세대들의 뇌리에 한겨울 연탄재가 쌓인 골목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 가운데 하나다. 시는 게 넘치지 않은 시절, 연탄 한 장도 꾸어주던 그 시절에는 사람살이의 정이 있었다. 아파트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살뜰한 정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의 테마는 60~70년대 삶의 현장이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 지도강사로 활동하는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모두 30여 점을 선보인다. '엄마! 천천히 가요', '맘이 주세요', '뚝! 뚝! 뚝!' 등 작품은 추억을 소환한다. 애뜻한 필치와 담담한 태상은 잠시 30~40년 시간 속으로 회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허름한 교실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뚝!뚝!뚝!'은 빈했었지만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고 있다. 박자를 맞추듯 뚝뚝 떨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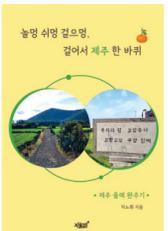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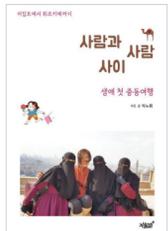
빗물은 음악처럼 감미롭게 다가온다. 한편 최준호 미술관장은 "작품들에선 화려한 색을 배제하고 먹의 농담과 번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며 "기성세대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오늘의 세대들에게는 앞선 세대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람과 사람사이'·'놀멍 쉬멍 걸으멍,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차노휘 작가, 여행 에세이집 2권 펴내

소설가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이다. 소설은 사람살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작업물이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09) 출신인 차노휘 작가는 사람살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설 작품으로 구현하기도 하지만, 더러 여행지에서 만난 이들의 모습을 에세이에 담아 독자와 공유하기도 한다. 여행과 소설쓰기, 삶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



차노휘 작가



차노휘 작가가 두 권의 여행 에세이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하나는 생애 첫 중동여행을 다녀와 쓴 '사람과 사람사이'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 올레길 완주를 모티브로 한 '놀멍 쉬멍 걸으멍, 걸어서 제주 한 바퀴'가 그것. 두 책 모두 지식과 감정에서 출발했다.

먼저 '사람과 사람사이'는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 튀르키예를 여행하며 느끼고 경험했던 삶의 현장들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중동 정세가 불안했던 때가 아닌 지난 2021년 무렵에 다녀온 것을 책으로 갈무리했다.

그는 "여행은 내 몸의 피처럼 내 인생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배려의 거리이기도 했다"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은 물리적인 거리도 단숨에 좁히는 축지법과 같았다"고 말했다.

책에서는 빗방울 위에 세워진 아야 소피아 성당을 비롯해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지하도시 카파도키아, 이스탄불에서 제일 우아하다는 살레미나에 모스크 등 저자가 직접 방문해 보고 느꼈던 현지에 대한 단상과 정보들을 만날 수 있다. '놀멍 쉬멍 걸으멍, 걸어서 제주 한 바퀴'는 제주 올레 여정을 하며 느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첫 번째 올레를 지난 2016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올레 여정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두 5차에 걸쳐 완주했다. 3년 동안 5회에 걸쳐 27일 여정을 일정기간 '발효'를 거쳐 책으로 풀어냈다.

그는 "시흥리에서 추자도까지 여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여행자센터에서 완주증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 모든 시간이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여행 내내 제주도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열렬한 청자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차 작가는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투마이 투마이', 소설창작집 '소설창작 방법론과 실제', 여행에세이 '섬표가 있는 두 도시 이야기' 등을 펴냈으며 광주대에서 문예창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0넘어 돌아온 '늦깎이 뮤지션'...“나의 길은 언제나 음악”

이광배 씨, 첫 앨범 'Comin' Home' 발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Comin' Home'에는 30년간 방황하다가 50이 넘어서야 '음악의 집'으로 되돌아온 심경을 녹였습니다. 늦깎이로 인디 신에 입문한 셈인데, 건강을 유지하며 신곡을 꾸준히 선보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첫 앨범을 발매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인디록 뮤지션 이광배(53)의 답이다.

그는 스스로를 '늦깎이 인디신 뮤지션'으로 소개했다. 20대 초부터 전남대, 호남대 및 광주 호프집 등에서 가리지 않고 음악활동을 이어왔지만, 정작 첫 앨범은 지천명이 넘어서야 발매했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인디신 루키가 되야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2013년. 당시 용봉동에서 음악클럽 '비틀즈'를 개업해 7년간 운영했으나, 후배 뮤지션들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클럽을 차분하고 일곡동 작업실에서 1년 반 동안 곡 작업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물이 첫 앨

범 'COMIN' HOME'. 지난 2022년 말 세상에 선보였지만 팬데믹 유행과 맞물려 마땅히 앨범을 소개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 씨는 "아이돌 붐'이 불 때는 라이브 밴드 가설 자리가 없어 회의감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나의 길은 언제나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언젠가는 재기하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이나마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앨범 수록곡 'Comin' Home'의 전반부는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주도하다가 후반부에 부드러운 여성 보컬(정효진)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굳은 마음이 표현돼 있다.

이 밖에도 앨범에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Love is', 소위 '가짜 언론'과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News bird' 등 다섯 곡이 수록돼 있다. 대부분이 록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프로그레시브 록 장르 작품들이다.

한편 이 씨는 오는 2~3월 중 카페뮤지엄CM(동



지난해 동구 카페뮤지엄 CM에서 이광배가 앨범 발매 콘서트를 진행하는 장면. <이광배 제공>

구 문화전당로 29-1)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4월에는 제주도에서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으로 4·3항쟁을 풀어낼 생각이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